

“춧불이 되어”



김 인 호
(서울신약 이사)

오늘 양돈은 춧불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소리없이 몸을 태우는 숭고한 봉사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농촌을 지키려는, 보상없는 강한 의지를 요구하고 있다. 주판 알맹이가 위로 튕겨져 올라가지 않는 배고픔도 견디어 내야 되는 강인한 인내심도 요구하고 있다. 농촌을 지키려면 독신자로 생활하는 사람들 집단의 명단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춧불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학교 졸업해야(농업전문) 공업인이나 상업인으로 성공한다는 이상스러운 소문때문

농촌을 등지고 떠나는 농민들이 인근에 유언조로 남기는 말 「농촌을 떠나야 된다」 한마디. 그러나 농촌엔 마지막까지 빛을 발하는 춧불 「양돈인」이 있다.

인지, 농업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이 전공외의 취업율이 100% 기록되는 세상으로 돼 버렸다, 아예 농업학교 벽보판에는 공장취업 안내문만 붙여질 수 있도록 배려 돼 버렸다. 춧불정신이 아니고선 들어설 수 없게끔 농촌으로 가는 길을 좁고 험악하게끔 만들어 버렸다. 이 좁고 험한 길로 들어서서는 자는 1,000에 하나(0.1%) 농촌을 이끌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자가 비장한 각오로 몸을 일으켜 자진할 정도일 뿐이다.

대(代)가 끊겨 자연도태 돼가는 모습이다. 소득수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버려야 되는 것일까. 고향을 외면하게끔 언제까지 이렇게 놔둬야 되는 것일까. 「살기 좋은 농촌으로 가자」까지는 못 될 망정 「농촌을 지키자」는 쪽은 되어야 되는 건데, 「농촌을 버리고 가야만 되지 않겠는가」라는 방관적인 쪽으로 매사가 전개되고 있으니...

요즈음 도회지 근교에 역대 거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씹씹이는 초라한데 종이갑부(언제 뛰어들지 몰라 현금화 시키지 못하는 부동산 소유자)로 돼버린 사람들 틈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귀담다 보면 교과서에서도 보지 못한 별천지 이야기 뿐이다. 이런 알 수 없는 공기가 농촌을 뒤 덮고 있으니 고향을 하나 둘 떠날 수 밖에 없는게 아닐까.

피 땀 흘려 노력하면 허리 펴날 있겠지 하며 기대하나, 날로 늘어나는 것은 무거운 빚더미 부채 짐 뿐. 별천지 세계의 언어를 배우려 새로운 학교 입학을 위해 도회지 근교로 주거지를 옮긴다. 농촌을 떠나면서 인근에 유언조로 남기는 말 “농촌을 떠나야 된다” 한마디. 떠나는 모습들이 흡사 노다지를 캐려고 광산촌으로 떼지어 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농촌에 촛불이 아직 타고 있다. 마지막 남은 힘까지



끌어올려 빛을 발하고 있는 양돈인들이 있다. 축산인들이 있다. 축산물이 소득작물이라서가 아니라, 생명체를 보살피며 고기를 빚던 「제2의 조물주」 정신으로만 생활하다 보니 결눈질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때문에 빚더미에 눌렸어도, 농촌을 떠날 것을 생각해 내지 못하는 허구성 모르는 순수한 농촌인들이 촛불을 아직도 켜고 있다. 이들은 농촌을 지켜줄 것이다. 이들이 대대(代代)로 물려주는 언어는 「촛불정신으로 살라」라는 촛불언어일 것이다. 도시 근교의 별천지 사람들이 보면, 「저렇게 뜨거운 고통을 당하며 버티고 있다니...」하며 야유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이 눈웃음 지으며 하는 소리들이 촛불을 켜고 있는 양돈인들의 귀에 들릴리 없다. 막 태어난 새

끼들의 꿀 소리가 더 귀엽고 사랑스럽기 때문이다. 어찌면, 밥때가 되어 밥 달라고 꿀꿀거리는 돼지들의 합창소리만 잘 들을 수 있는 귀로 되어 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까만 공해로 그을린 휘황찬란함이 몇 십년은 지속 될는지 모른다. 그 휘황찬란함이 까만 감기에라도 까만 감기에라도 걸려 곧 침묵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별천지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언어들은 지금 들어도 그 의미를 알 수 없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말들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게 될 양돈인들이 지금 촛불을 켜고 있다. 뜨거운 고통을 받으면서도 말없이 촛불을 켜고 있다. 농촌의 구석구석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촛불되어 몰아내고 있다. 촛불이 있는 한 농촌은 밝게 빛날 것이다. **■**